

창사 32주년 기념식

“1등 경쟁력 갖춘 콘텐츠, 디지털, 글로벌 기업으로!”

창사 32주년 기념식이 11월 11일(금)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SBS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는 테마 영상으로 시작됐다.

2022년에도 SBS는 1등 방송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7년 연속 시청률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프라임타임은 물론 전 시간대에서도 가장 많은 시청자가 SBS를 선택하며 적수 없는 강자임을 입증했다. 웨이브에서도 드라마, 예능, 교양까지 전 장르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1위를 석권했다. 올해도 SBS는 라이벌 없는 드라마 왕국, 이번 없는 예능 강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교양의 명가, 라디오 청취율 8년째 1위 등 모든 부문에서 ‘1등 방송사’를 달성했다.

박정훈 사장은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SBS는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제작과 보도, 디지털 부문의 우수한 콘텐츠들과 뛰어난 광고 마케팅 영업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광고 매출과 유통 수익을 만들어냈다. 또한 편성과 경영, 기술 부문의 비용 절감 노력과 자회사들의 건실한 성과까지 더해져서 경쟁사들이 부러워하는 영업실적이 예상된다”며, 이 모든 성과를 가능하게 해준 SBS 미디어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정훈 사장은 또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내부 혁신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우리의 미래 생존전략의 키워드인 콘텐츠와 디지털, 글로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창사 3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윤세영 창업회장이 함께했다. 윤세영 회장은 축하사에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준 임직원들을 치하한 뒤,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다. 외부환경 변화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무한 경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3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세영 회장은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언급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건강한 콘텐츠도 화목한 가정의 응원을 받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스스로를 끝없이 성장하고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남들의 인정도 받고 그가 속한 조직도 건강해진다”며 구순(九旬)의 지혜를 전했다.

한편, 기념사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2 올해의 SBS인 대상은 예능2CP 소속 최보필 사우가 받았다. 최보필 사우는 <런닝맨>을 연출하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획을 통해 2049시청률 증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찬을 유치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마케팅 시장 확대 및 수익 증진에 기여했다.

올해의 SBS인 우수상은 교양D스튜디오 도준우 차장대우, 보도국 경제부 김흥수 차장이 받았다. 도준우 차장대우는 SBS 교양 유튜브 채널인 그알과 달리를 명실상부한 국

내 최고의 교양 유튜브 채널로 성장시켰다. 김흥수 차장은 <2022 국민의 선택>을 연출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 방식으로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

올해의 SBS팀은 미디어사업팀, 편성팀, 동물농장제작사업팀, 예능3CP, D콘텐츠기획부, 미디어기술연구소가 받았다. 미디어사업팀은 통신사 및 글로벌 OTT의 콘텐츠 공급경로 확대를 통해 수익 극대화에 기여했고,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에 진출하여 SBS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편성팀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 국민의 선택>에서 맞춤형 편성 전략을 수립해서 수익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했다. 동물농장제작사업팀은 <TV 동물농장>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IP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SBS 수익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했다. 예능3CP는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돌싱포맨> 등의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으로 SBS 예능 프로그램의 위상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했다. D콘텐츠기획부는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통합뉴스룸 시스템 구축, 데일리 영상 통합 제작을 통한 유튜브 및 포털 구독자 증대, SBS 뉴스 프리미엄 구독 플랫폼 출범 등 보도본부의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편집비서, 고지 검출 시스템, 자동 자막 등 SBS 콘텐츠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SBS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SBS 창사 32주년 박정훈 사장 기념사

‘No.1 기업’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SBS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SBS가 서른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SBS 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창사 32주년 기념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반갑고 기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슬픔과 혼돈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물가와 금리가 폭등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같은 믿기 어려운 비극까지 일어나서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SBS는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TV는 7년 동안, 라디오는 8년째 경쟁력 1등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연 초부터 압도적 우위를 점한 베이징올림픽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성공적인 대선 방송과 지방선거 방송은 우리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준 쾌거였습니다. 제작과 보도, 디지털 부문의 우수한 콘텐츠들과 뛰어난 광고마케팅 영업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광고 매출과 유통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편성과 경영, 기술 부문의 비용 절감 노력과 자회사들의 견실한 성과까지 더해져서 경쟁사들이 부러워하는 영업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1등이라는 수식어가 SBS 앞에 붙지 않으면 낮설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해 내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팀워크로 이 모든 성과를 가능하게 해준 SBS 미디어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SBS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성과 이면에는 결코 쉽지 않은 난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들이 쏟아내는 물량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OTT 출현으로 드라마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제작비용이 두 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OTT 기업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규모 있는 드라마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내부 혁신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미 ‘비전 2030’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미래 생존전략의 키워드는 콘텐츠와 디지털, 글로벌입니다.

회사는 올해, 슈퍼 IP 생산을 위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보

도 부문을 디지털 중심조직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12월에는 디지털 부문을 이끌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글로벌 사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K-POP 공연을 개최했고 필리핀 <런닝맨> 공동제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DNA 싱어>를 비롯한 콘텐츠 포맷 수출의 영역도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능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암동으로 이전해서 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예능 스튜디오 설립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 전략은, 본부 단위로 머물러 있던 킬러 콘텐츠 생산기지를 구성원들이 더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SBS 그룹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미래전략입니다. 한 해 동안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었고 예능의 미래비전에 대해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치게 되면 내년 초에 예능 스튜디오가 출범하게 됩니다. 예능 스튜디오는 SBS 미디어 그룹이 ‘넘버원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BS 가족 여러분

회사는 조만간 우리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SBS Culture Code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대한 회사의 구성원은 우리 사회의 모범시민이어야 합니다. 항상 약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절제된 말과 행동을 일사화해야 합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위대한 SBS’는 이런 회사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공정한 시사, 보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재원을 콘텐츠 투자에 집중해서, 1등 경쟁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최고 대우를 할 뿐 아니라 신상필벌이 엄격한 회사입니다. 업무의 모든 과정이 1급수처럼 투명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되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더 보상받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자긍심 높은 프로페셔널들이 만드는 고품질 콘텐츠는 국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SBS 가족 여러분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SBS’의 모습이 우리들의 손을 거쳐 하나하나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사양 산업이었던 지상파방송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1등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디지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창사 3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의 SBS가 있기까지 늘 곁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주시는 윤세영 창업회장님과 퇴직한 선배님들, 그리고 언제나 최고를 위해 애쓰시는 SBS 미디어 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BS 창사 32주년 윤세영 창업회장 축사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라!”

여러분, 1년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박정훈 사장의 기념사 잘 들었고 정말 감격이 깊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위대한 회사, 그레이트 컴퍼니의 청사진, 우리의 희망을 아주 잘 담았습니다. 선장인 박정훈 사장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SBS인, SBS팀으로 선정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오늘 같이 기쁜 날을 맞아 SBS 32년을 함께 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2년을 돌아보면, 어느 한 해도 순탄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SBS를 비롯한 SBS 미디어그룹이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여왔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지성과 열정의 힘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초에 SBS는 노사화합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은 있었지만, SBS를 사랑하는 모두의 진심이 모여 상

호 신뢰와 존중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SBS가 더 힘차게 미래를 열어 나갈 기반을 튼튼하게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있습니다. 외부환경 변화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무한 경쟁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3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민영은 민영다워야 하고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초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팩트에 충실한 공정한 방송과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니, 듬직하고 믿음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김에 올해 구운을 맞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 하였습니다. 수신제가를 잘하는 사람이 더 큰 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



상을 만드는 건강한 콘텐츠도 화목한 가정의 응원을 받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끝없이 성찰하고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남들의 인정도 받고 그가 속한 조직도 건강해집니다. 제 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SBS 창사 32주년을 축하하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DF 다시 쓰는 민주주의 “팬덤·혐오 정치에서 벗어나 공론 정치로 나아가야”

6백여 명, DDP 찾아 객석 가득 메워… 성황리에 ‘마무리’

창사 32주년 특집 SBS D포럼(SDF)이 11월 3일(목), 동대문 DDP에서 많은 관심과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SDF 논의의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였다. 갈등과 논쟁만 일으키는 우리의 정치 현실 때문에 참가자가 많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6백여 명이 포럼장을 찾아 매 세션마다 객석을 가득 메웠다.

연사들은 열정적인 강연으로 관객들의 열기에 보답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아담 쉐보르스키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장한 SDF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연설을 한 안 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이 팬덤 정치에 빠져 버린다면, 정당 안에서의 건강한 반대 의견은 사라질 것”이라며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주문했다.

SBS 논설위원실 미래팀이 기획하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연구한 ‘정치 개혁 방안’ 발표도 이뤄졌다. 연구 책임자인 유홍림 교수는 우리 정치를 적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 규정한 뒤, “이제는 여론이 아닌 공론에 의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독립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위원회 설치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시민 포럼 네트워크 구축 ▲시민 발의제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특별 연설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SBS와 서울대의 공동 제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게 충실히 개헌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표 내용은 국내 수많은 매체에 인용돼 기사화됐다.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민주주의 다시 쓰기’도 이어졌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금희 소설가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 교수는 포퓰리스트들은 외로움에 빠진 개인을 노린다며 이런 선동가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진화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다정함을 통해, 사회온

동가 로니 에버젤은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이른바 ‘사람 도서관(Human Library)’을 통해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줄여나가자고 제안했다. 임우진 건축가는 국회 본회의장과 같이 잘못 설계된 공간은 서로를 싸우게 만든다며 연결된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앤 머리 리핀스키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먼저 언론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장 참가자들을 위해 메인 무대 옆에 ‘사람 도서관’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70여 명이 우리 사회 소수자로 구성된 ‘사람 책(Human Book)’을 빌려서 30분간 대화를 하며 상대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사 사인회엔 긴 줄이 늘어섰고,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코너에는 손글씨로 직접 쓴 여러 제안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SDF를 총괄 기획한 이정애 미래팀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 기간에 포럼을 강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까지 해야 했지만 SDF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데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시청자와의 약속이어서 고심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힘든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



안 베르너 뮐러 교수



유홍림 교수



SBS, 2022 카타르 월드컵 ‘저지연 라이브 및 멀티 오디오 서비스’ 제공

미디어기술연구소와 SBS는 ‘저지연 라이브 및 멀티 오디오(MPEG-H)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여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2022년 11월 20일 ~ 12월 18일, 현지기준) 기간 동안 서비스하기로 했다.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저지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원본 영상 대비 지연 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인 획기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면 지연 시간이 약 10~15초가량 줄었다. 따라서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되는 이번 월드컵에서 타사와 차별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멀티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는 시청자에게 4가지 모드(기본/현장/해설/영어)의 맞춤형 멀티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청자가 취향에 따라 직접 원하는 오디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시청 만족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콘텐츠마스터링팀, 네트워크기술팀과 함께 ‘저지연 라이브 및 멀티 오디오 스트리밍’ 송출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했고, SBS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발을 수행했다.

월드컵 기간 동안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차별화된 스트리밍 시청 경험은 SBS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배성재, 박지성,

이승우, 현영민, 장지현으로 이어지는 최강 해설진을 완성한 SBS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빅이벤트의 강자임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라는 각오다.



SBS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첫 방부터 터졌다!

몰입감 최고 x 스펙터클한 영상, 우리들의 숨은 영웅 이야기

11월 12일(토) 첫 방송된 새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극본: 민지은, 연출: 신경수)가 당일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2049시청률 1위에 오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소방서 옆 경찰서>는 2049시청률 4.2%를 기록, KBS 2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3.4%, tvN <슈룹> 4.1%에 앞서며 전작인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세를 이어갔다. <소방서 옆 경찰서>는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공동대응 현장일지로, 타인을 위해 심장이 뛰는 '최초 대응자'들의 가장 뜨거운 팀플레이를 담은 드라마다. 범죄와 재난, 응급과 위급을 오가는 치열한 현장을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야기를 국내 최초로 그린다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첫 회에선 소방과 경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촘촘한 구성과 스펙터클한 영상을 통해 잘 그려져 앞으로의 방송에 더 큰 기대를 갖게 했다.

첫 방송에 앞서 11월 10일(목)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스튜디오S 박영수 기획제작CP는 "3년 전부터 기획한 작품으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해결하기 힘든 사건들을 경찰과 소방의 공조로 풀어가는 사례를 조사했다"며 "잔혹한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경찰과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공조 플레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걸 지켜봐 달라"고 소개했다.

극중 김래원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건을 파헤치고 해결해 나가는 검거율 1위 열혈 형사 진호개 역을 맡았다. 거친 눈빛과 독한 말투 탓에 오해도 많이 받지만, 날카로운 현장 파악 능력, 범인의 심리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승부근성까지 모두 갖춘, 말 그대로 "뺨속까지 형사"다. 손호준이 맡은 봉도진은 직업의식이 투철한 소방관이다. 평소엔 순하지만 화재 현장에선 모두가 뛰쳐나오는 화염 속으로 돌진하는 '불도저' 같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공승연은 간호사 출신의 소방서 구급대원 송설 역을 맡았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강인하면서도 공감 능력 뛰어난 따뜻한 인물이다.

진호개, 봉도진, 그리고 송설은 성격도 다르지만 현장을 분석하는 형사와 소방대원의 서로 다른 시각 탓에 티격태격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들의 공동 목표가 만들어낸 의외의 호흡이 이 작품의 최대 관전 포인트.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동으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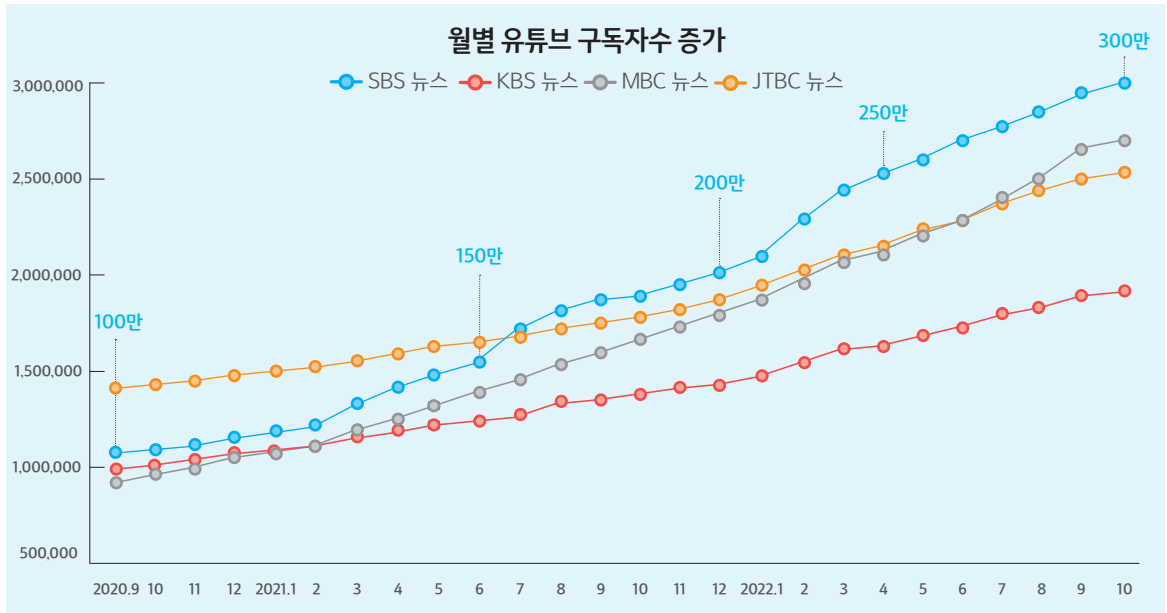
응하는 이야기를 위해 현실적 사건부터 가장 어려운 과학수사로 끝나는 화재조사 디테일까지 리얼하게 담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각오다. 매회 다른 에피소드로 손에 땀을 쥐는 스릴과 감동을 안겨줄 <소방서 옆 경찰서>는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송된다.

SBS 뉴스 유튜브 구독자 300만 명 돌파! 확고부동한 지상파 1위

SBS 뉴스 유튜브 채널이 10월 28일(금) 구독자 300만 명을 돌파했다. 지상파 뉴스 채널 가운데 처음이다. 이로써 SBS는 보도채널 YTN을 제외한 지상파와 종편 전체에서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구독자 증가 속도다. 2020년 9월 구독자 100만 명 돌파 후 200만 명을 넘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300만 명을 달성한 건 그로부터 10개월 만이다. 여기에 더해 SBS보도

본부의 저널리즘 콘텐츠인 비디오머그 구독자 118만 명, 스포츠머그 27만 명까지 감안하면 450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디지털 구독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상에서 디지털 뉴스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언론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SBS는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20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빅 이벤트마다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

으로 구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것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경우 '가장 빠른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통해 TV중계뿐 아니라 디지털에서도 'SBS가 No.1 올림픽 채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치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가 호평받았던 '대선패트', 또 유튜브 오리지널 개표 방송인 '주구장창-대선 라이브'를 동시 편성하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당일 자정 이후 선거 방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동시 접속자 1위를 달성했다. 6월 지방선거 때에도 '방방곡곡-지선 라이브'를 내보냈고, 6월 누리호 2차, 8월 다누리 발사 이벤트에서도 유튜브 공간에 최적화된 자체 제작 라이브 콘텐츠를 사전 준비해 전 방송사 중 동시 접속자 1위라는 성과를 냈다. 구독자 급증의 계기가 된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 외에, 데일리 뉴스의 콘텐츠 양과 질을 높이는 시도도 멈추지 않았다. <SBS 8 뉴스>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먼저 구독자들에게 선보이는 <D리포트>로 속도 경쟁력을 높였고, <워싱턴 인사이드>, <그 사람>, <후스토리>, <월스트리트>, <스페셜리스트> 등 뉴스와 버티컬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심층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여 깊이감을 더했다. 올해 첫발을 댄 통합 뉴스룸 조직 개편으로 협업 사례가 늘고 디지털 제작 리소스도 본격 강화되면 보도본부의 디지털 퍼스트 전략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힘들고 지쳤던 한 해, 기대하지 않은 큰 상 주셔서 감사”

- 올해의 SBS인 대상 최보필 PD(예능본부)

득녀를 축하한다. 아이 출산을 앞두고 <런닝맨>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출산 때문에 하차한 건 아니고 우연히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됐다. 선배들에게서 아이의 탄생을 함께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운이 좋았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2주 차인 지금까지, 약 10개월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도 엄마의 정성과 희생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걸 많이 느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과 희생을 통해 지금의 세 식구를 이루게 해준 아내와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예능 PD 9년 차다. 어찌다 보니 연출을 일찍 맡게 되어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런닝맨>을 2년 반 정도 이끌어오다가 지난 8월에 하차하고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대학에선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미디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시청자의 눈으로 시작한 PD 생활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무지한 상태였던 것이 더 도움이 된 것 같다.

PD가 되기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근데 왜 맨날 저기서 저렇게 할까?’ 혹은 ‘이렇게 하니가 엄청 재밌는데?’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접목시켜 보니 신선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다. 하지만 또 지금은 단순히 이런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힘든 시대이니만큼 새 프로에선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런닝맨>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한 공으로 올해의 SBS인상 대상을 받았다.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

사실은 올해가 제겐 가장 힘들고 지쳤던 한 해였고, 결과물 또한 자신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런닝맨>은 12년이 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체적인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시기들이 중간중간 수없이 존재했고, 제가 맡았던 2년 반 동안에도 수많은 업 & 다운이 있었다. 딱히 제가 맡았던 시기가 특별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제가 맡았던 시기에 ‘업’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 <런닝맨>의 시그니처인 스케일 큰 레이스로는 전작들을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힘을 빼고 접근했다. 멤버들이 더 이상 ‘TV 속의 연예인들’, ‘저세상의 히어로들’이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평범한 인간됨을 보여주며 그들의 인간미와 솔직한 관계성을 많이 보여주고자 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런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 편집, 자막 또한 기존의 <런닝맨>과는 다른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 같은 팀의 PD, 작가들 또한 공감해 주며 통일성을 잘 유지해 준 덕에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었다.

예능 장수 프로그램인 <런닝맨>에 대해 한마디

<런닝맨>은 생각보다도 더욱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박혀 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힘들었던 청춘시절의 소소한 웃음거리였다. 그래서 <런닝맨>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 보는 사람들까지도 <런닝맨>의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그 안의 멤버들의 케미와 캐릭터에 대해 애정이 있는 것 같다. 그 점을 잊지 않으면 꼭 거창한 걸 하지 않더라도, 꼭 매번 박장대소하게 만들진 못하더라도 쉼 없이 쌓여가는 세월만큼 <런닝맨>의 가치는 더욱 빛날 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시청자로서 더욱 응원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PD라는 포



지선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론 혼자 분에 겨운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 <런닝맨>에 관련된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 같이 일한 스태프분들은 물론이고 색보정, 종편, 홍보, 협찬, CG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새 프로그램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내년 초에 촬영해서 3, 4월에는 방송하는 게 목표인데 워낙 변수가 많아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도, 출연자도, 회사도 만족할 만한 시기에 완성해 내는 것이 목표이니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다. 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내가 해보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줄 아는 것’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 타이밍엔 조금 더 ‘내가 할 줄 아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람들도 기대하는 방향성의 콘텐츠를 최대한 새롭게 담아내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창사 32주년 포상 |



올해의 SBS인

김홍수 기자
경제부

도준우 PD
교양D스튜디오

대상
최보필 PD
예능2CP소속

D콘텐츠기획부
정명원 부장

편성팀
이은지 팀장

미디어사업팀
최광재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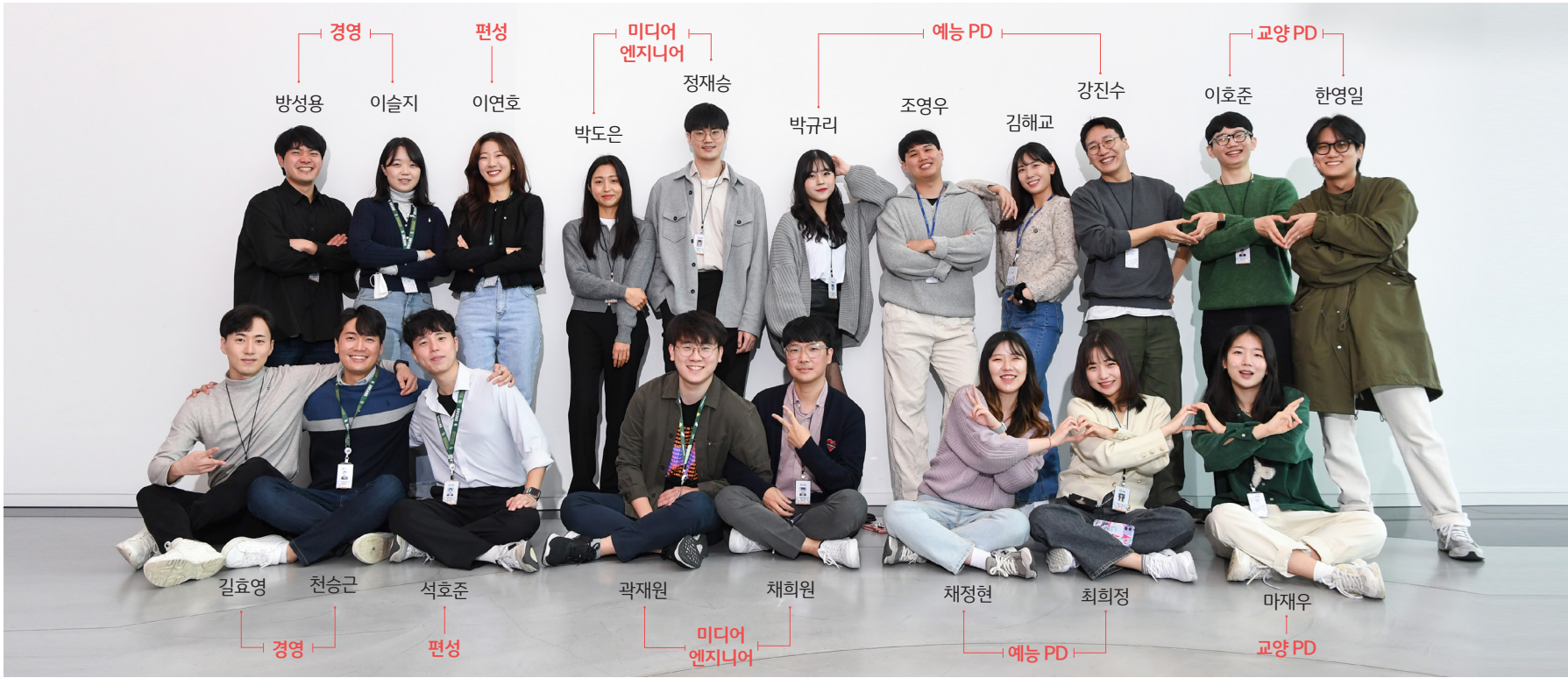
올해의 SBS 팀

예능3CP
곽승영 CP

미디어기술연구소
김상진 소장

동물농장제작사업팀
주시평 팀장

19인의 신입사원 입사 - “축적의 시간 거쳐 SBS 인재로 성장 기대”



19명의 신입사원들이 11월 1일(화) 임명장을 받았다. 6주간의 인턴십 평가 기간을 거쳐 전원 임명장을 받은 신입사원들은 예능 PD 6명, 교양 PD 3명, 콘텐츠 기획/편성 2명, 미디어 엔지니어 4명, 경영 4명이다. 박정훈 사장은 신입사원들에게 “5년간의 축적 기간을 거치면 SBS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을 것을 당부했다. 신입사원들이 생각하는 SBS는 젊고, 진취적이며, 트렌디하고, 열려 있으며, 늘 실험적인 도전을 하는 회사(천승근, 정재승)였

다. 신입사원 중에는 고 1 때부터 SBS 입사를 희망했다는 사원(박규리), 주말에 안양천을 산책할 때마다 SBS를 바라보며 입사를 간절히 바랐다는 사원(석호준), 세련되고 트렌디한 이미지가 본인과 잘 어울려서 SBS를 택했다는 사원(김해교),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SBS를 선택했다(이슬지)는 사원도 있었다. 인턴십을 하면서 느낀 SBS는 선배들이 잘 챙겨주는 정이 많고 인간적인 곳(한영일, 이연호, 방성용, 채정현), 많지 않은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회사(조영우), 작지만 강

한 조직(길효영), 젊고 유연한 조직(마재우), 직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채희원, 최희정)였다. 신입사원들은 “지금까지 SBS가 잘해온 것들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신선한 것을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겠다”(이호준), “뛰어난 선배들에게 배운 후 나의 역량을 펼쳐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박도은), “지상파의 틀에서 벗어난 콘텐츠 기업으로 만들겠다”(곽재원)고 다짐했다. 강진수 사원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5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해왔다.

‘영빈관 신축 비용’ 연속보도 이달의 기자상 등 3관왕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이전 비용’ 연속보도(장민성, 강민우, 김학휘, 유수환, 이현영)가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3분기 BJC 보도상 등 3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장민성 기자 등은 10월 19일(수) 한국방송기자클럽(BJC)이 주는 3분기 보도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26일(수)에는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제16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31일(월)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385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여 모두 3개의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이전 비용’ 연속보도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다뤄 뉴스 가치가 높고, 영빈관 신축 철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공약과 예산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장민성 강민우 김학휘 유수환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드’ 이달의 방송기자상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드’(김수형, A&T 이재영, 서진호)가 10월 26일(수)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6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서 디지털뉴스 부문 상을 받았다. 김수형 기자 등은 글로벌 인사이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TV 뉴스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내용과 구성, 그리고 단독 인터뷰 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공생의 법칙 2> 이달의 PD상

<공생의 법칙 2>(연출: 김진호, 최장원, 작가: 이예솔)가 제 271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공생의 법칙>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침입 외래종이 생겨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조화로운 공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4부작에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환경 이슈를 다뤄나 보도가 아닌 예능 장르로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생태계의 ‘공생’과 ‘조화’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11월 1일(화)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최장원 PD 이예솔 작가

<골때녀> 광고주가 뽑은 프로그램상

10월 20일(목) 조선포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주최 2022 한국광고주대회 ‘광고주의 밤’ 행사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연출: 김화정)이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KAA Awards)을 수상했다. <골때녀>는 매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레전드 경기를 경신하며 수요일 예능 1위를 달리고 있다.



홍경선 광고위원장 김화정 PD

시사교양 조옥희 부장 안식년



시사교양본부 조옥희 부장이 12월에 안식년을 맞는다. 조옥희 PD는 SBS 창사와 함께 입사, <행복찾기>를 통해 방송을 배웠고 <모닝와이드>, <희망TV>,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연출했다. 이후 다큐멘터리 <용서>, <미혼부>, <아버지 그 사랑을 위한 변명>, <기지촌 할머니들>, <라이프 이한의 눈물> 등을 만들었다. 조옥희 부장은 “SBS와 선배 동료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해왔다.